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1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스승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 어떤 외물(外物)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逍遙遊]이지.

3 그렇다면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요?

4 도(道)와 일치하는 삶으로,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네.

- ① 존비친소(尊卑親疏)를 구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②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 ③ 자연스러운 본성을 바탕으로 도덕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집착과 애욕을 버리고 윤회(輪廻)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⑤ 인(仁)의 실천을 통해 사욕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의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다.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p> <p>을: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는 공리의 원리와도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 보 기 >
- ㄱ. A: 공적인 활동을 회피하고 개인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ㄴ. B: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의 추구가 바람직하다.
 - ㄷ. B: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제거해야 한다.
 - ㄹ. C: 쾌락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훌륭한 나라에서는 올바름만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절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한 나라가 올바른 것은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제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을: 이 사회의 성인 남녀들은 매일 6시간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며 8시간 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한다. 그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 ① 갑: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 ② 갑: 통치자와 방위자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다.
- ③ 을: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사회이다.
- ④ 을: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 여가 생활을 금지하는 사회이다.
- ⑤ 갑, 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이다.

4.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단박에 깨닫기는 했으나, 번뇌가 두텁고 습기(習氣)가 견고하고 무거워서, 생각마다 망령된 감정이 생겨나 혼미함과 산란함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을: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우리의 일심(一心)에도 무명(無明)과 깨달음의 경지인 진여(眞如)가 동시에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둘이 아닌 하나이다.

- ① 갑: 경전 공부에만 의존하여 성불(成佛)해야 한다.
- ② 갑: 돈오(頓悟) 후에도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한다.
- ③ 을: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을: 일심을 바탕으로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해야 한다.
- ⑤ 갑, 을: 각 종파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만약 법칙이 도덕적으로 또는 의무의 근거로 타당해야 한다면 그 법칙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어야 한다. “항상 진실을 말하라.”라는 정언 명령은 한 인간에게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에게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의무의 근거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나 경험적인 세계 내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순수 이성의 개념들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

- ① 모든 준칙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진다.
- ② 도덕 법칙은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원리이다.
-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 ④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결과이다.
- ⑤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모든 의무의 원리이다.

6.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生理]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치는 만사에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아,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p> <p>을: 정(情)은 하나이지만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나누어 말해야 하는 것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p> <p>병: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기(理氣)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主)된 바를 따라 이와 기로 나누어 연결시킬 수 있다.</p>
(나)	<p>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p> <p>Legend: <별 레>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 보 기 >

ㄱ. A: 마음 밖에도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가 존재하는가?
 ㄴ. B: 사단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나는 감정인가?
 ㄷ. C: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이의 본체를 실현해야 하는가?
 ㄹ. D: 쓰임[用]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운동성이 없는 것인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이성은 결코 양심이나 도덕감과 같은 활동적 원리의 원천일 수 없으며,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반대할 수도 없다.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이다.

을: 이성은 실험적 지성으로서, 과학을 모범으로 삼고 경험에 의해 검사받아야 한다. 도덕 문제도 실험적 논리를 적용해야 하며, 그 논리가 악을 개선하는 데 쓸모 있다면 선한 것이 된다.

< 보 기 >

ㄱ. 갑: 인간의 이성은 사회적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ㄴ. 갑: 타인의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은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없다.
 ㄷ. 을: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결정해 주는 선형적인 원리는 없다.
 ㄹ. 갑, 을: 경험은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람이 불선(不善)한 것은 타고난 재질[才]의 잘못이 아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본디부터 있던 것들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본성대로만 따른다면 누구나 선하게 될 수 있다.

을: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따르고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분수를 어기게 되며,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난폭함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教化)와 예의에 의한 교도(教導)가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실마리[端]라고 본다.
 ② 갑은 수양을 하지 않으면 양지(良知)가 소멸된다고 본다.
 ③ 을은 타고난 인의를 확충한 사람을 대인(大人)이라고 본다.
 ④ 을은 인위적인 노력[偽]으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하는 존재라고 본다.

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덕은 마땅히 지혜이다.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한다. 또한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욕구하지 않는다.

을: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지성적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 생긴다. 그리고 품성적 덕은 중용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성품으로,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 보 기 >

ㄱ. 갑: 선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다.
 ㄴ. 갑: 무지를 자각하고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ㄷ. 을: 중용은 모든 행위와 모든 감정에 존재한다.
 ㄹ. 갑, 을: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선에 대한 앎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신과 대면하여 참된 자신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을 믿고 따르려는 결단을 통해 실존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실존한 후에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이므로 실존이 본질에 앞섭니다. 이는 인간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서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 나감을 의미합니다.

갑
을

- ① 개인은 상대화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임을 간과한다.
 ② 신은 모든 자연물에 내재된 인과 범칙임을 간과한다.
 ③ 인간은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인간은 신앙으로 주체적인 참모습을 자각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인간은 이성만으로 자신의 실존 문제를 극복해야 함을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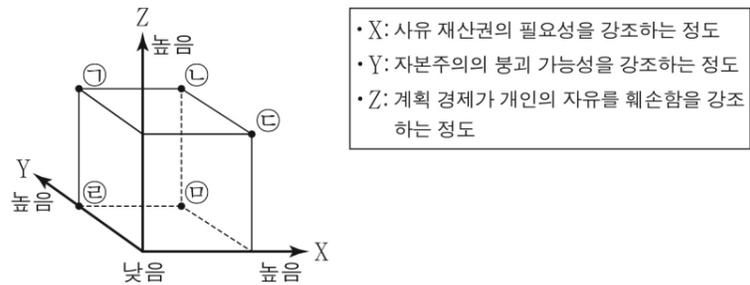
11.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전제로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나아가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정치적 삶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을: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시민이 한 영역 내지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모든 시민이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가치를 분배할 때에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영역마다 존재하는 고유한 정의의 원칙들을 단일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소수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사회를 지양해야 한다.

12.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효율적 자원 배분은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는 자생적 시장 질서에서 이뤄진다. 시장 질서에서 개인들이 상이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교환의 원리 덕분이다.
 을: 자본주의에서는 대공업의 발전과 함께, 부르주아가 점유하는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부르주아의 멸망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기질지성(氣質之性)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며,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질지성이 기호(嗜好)로서 이름을 얻었으면 천명지성도 마땅히 기호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 ① 사단은 인간이 생득적으로 지닌 본성이다.
- ② 기질지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이다.
- ③ 자주지권(自主之權)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획득된다.
- ④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욕구의 제거가 필요하다.
- ⑤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

1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한 개인의 삶의 역사는 항상 그의 정체성을 도출해 내는 공동체의 장구한 역사에 편입되어 있으며 개인은 전통의 담지자로서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삶에 주어진 바이고 그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가족, 이웃, 도시, 국가 등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 보기 >

- ㄱ.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공동체의 목적과 무관하다.
- ㄴ. 개인은 공동체의 선, 관행, 전통과 분리된 독립적 존재이다.
- ㄷ.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ㄹ.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통해 형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혜를 끊고 지식을 버리면 백성의 이익[利]은 백 배나 더할 것이고,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는 자애로워지며, 기교[巧]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둑은 없어진다.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가로 열쇠] (A): 불교 용어로 '결림이 없다'는 뜻 예) 원효는 ○○행으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함 (B): 윤리학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예) 칸트의 도덕 법칙은 의무를 강조하는 □□ 법칙임</p> <p>[세로 열쇠] (A): …… 개념</p>

- ① 인간의 성정(性情)을 변화시키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 ②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기준이 되는 타율적 행동 지침이다.
- ③ 인간의 힘이 인위적으로 더해지지 않은 최상의 덕(德)이다.
- ④ 세속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의의 덕이다.
- ⑤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길러지는 도덕적 기개이다.

16.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혹시 너는 우주의 질서가 네게 지정한 운명에 대해 분개하거나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 대신에, 세상에는 신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리고 외부 사물들은 영혼을 해치지 못하고 항상 외부에서 정지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모든 불안은 오로지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에서만 오는 것임을 명심하라.

- ① 이성을 발휘하여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 ②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참된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인격신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 ④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 ⑤ 은둔하는 삶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무를 회피해야 한다.

1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 개인들은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과 자유를 사회적 선의 요구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을: 우리가 자기 몸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를 받게 하고, 각 구성원을 분할될 수 없는 전체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 계약의 본질이다.

- ① 갑: 국가는 개인들이 맺은 사회 계약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가진다.
- ② 갑: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가진 자연권의 보장이 불확실하다.
- ③ 을: 개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 ④ 을: 사회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도 시민으로서 주권을 가진다.
- ⑤ 갑, 을: 국가는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체이다.

18.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을 향해 작용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들은, 인식하며 깨닫는 어떤 존재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목적을 지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을 향하도록 질서를 만들어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신(神)이라 부른다.

- ① 인간은 이성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② 최고선과의 합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성을 배제해야 한다.
- ③ 학문의 위계 관계에서 철학은 신학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
- ④ 인간은 도덕적 덕의 실천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⑤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법에 영향을 받아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19.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두 가지 극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과 고행(苦行)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래(如來)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中道)를 완전히 깨달았다. 이처럼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涅槃)으로 인도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	√		√	
연기(緣起)를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	√
무아(無我)를 자각하여 탐욕을 버려야 한다.				√	√	√
현실에서 벗어나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지(知)와 행(行)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구분해야 한다면, 선후를 논할 때는 마땅히 지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경중을 논할 때는 마땅히 행을 중시해야 한다.
 을: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지의 진지하고 독실(篤實)한 면이 바로 행이고, 행의 밝게 깨닫고 정밀하게 살피는 면이 바로 지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격물(格物)이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 지와 행은 구분되므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을은 ㉢ 격물이란 개개 사물이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얻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라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공통적으로 ㉤ 지와 행의 일치가 도덕적 삶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